

조선대 내분 기로 “총장 선출 vs 복귀”

이사회 “8월10일까지 선출안 제시, 9월 개교기념일 전 선출”

강동완 총장 측 “해임 부당, 업무 복귀”...이사회 “행정 소송”

교평, 강 총장 복귀파-반대파 혼재, 대항체제 장기화될 수도

국내 최초 민립대학인 조선대학교의 내분 기로에 놓였다.

“총장 해임은 부당하다”는 교육부 소청심사 결과를 두고 법인이사회의 행정소송을 예고했고 강동완 총장 측은 업무복귀를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이사회 측이 “9월 개교기념일 이전에 새 총장을 뽑겠다”는 입장인 데다 내용이 조급 수습될 지, 총장 대행 체제가 장기화될지 갈림길에 놓여 있다.

23일 조선대에 따르면 학교법인인 조선대 재단이 최근 이사회를 열고 최고협의기관인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와 혁신위원회에 “8월10일까지 차기 총장 선출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인 측은 이를 토대로 개교 73주년 기념일인 오는 9월29일 이전에 신입 총장을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총장 선출 방식은 특히, 교수평의회와 직원노조, 총학생회, 총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대자협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직선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보완책을 담은 수정 직선제와 총장추대, 배심원제 등을 도입한 혼합형 선출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홍성금 총장 직무대리도 “외부인사 참여나 내부 비율 조정, 간접 선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직선제는 모든 구성원이 피답으로 지켜온 가치”라며, 추대나 배심제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잖아 최종안 도출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9월 마지막날도”도 현재로서는 확신하거나 장담할 수 없다. 선출 방안 제시 기한이 당초 6월10일에서 두달 늦춰졌지만, 변수들이 적지 않아서다.

우선 법적 다툼이 걸림돌이다. 강 총장 측은 직위해제와 해임에 대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가 “부당하다”며 각각 무효와 취소 결정을 내린 점을 내세워 “총장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24일부터 총장 업무에 복귀,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혀 물리적 마찰도 우려된다. 강 총장 복귀가 현 집행부 물갈이로 이어질 경우 편이 깨지고 주도권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수도 있다.

반면 법인이사회의는 “자유개선대

학 탈락에 따른 정원 감축과 재정 악화, 대학평판 하락과 신입생 경쟁력 하락, 학교 혼란 리더십 상실에 따른 직무수행 한계 등에 비춰볼 때 직위해제와 해임은 정당했다”며 소청심사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총장 선출은 법적 공방과 별개로 진행될 수 있지만 여러 절차상 9월 안에 매듭지어질 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우선 대자협 4개 단위에서 차기 총장 선출 방법과 세부사항에 합의

해야 하고, 그 결과를 대학평의회에 보고한 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자협 4개 단위별 선거권 비율을 정하고, 총장추천위를 구성하는 등 세부절차도 과제다. 2016년의 경우 교수 76% 정규직 직원 13% 총학 7%, 총동창회 3% 순으로 선거권을 행사했다.

학사구조 개편 등 혁신안에 반발해 대자협을 탈퇴했던 교수평의회가 진통 끝에 대자협 복귀를 결정한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강 총장 복귀파와 반대파가 양존해 의견조율

역시 숙제다. ‘총장직 즉각 시퇴’를 촉구했던 교평 일각에서 총장 복귀 동조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음에 반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출된 대학 구성원들간의 첨예한 진영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발언을 아껴오던 총학생회도 “더 이상의 파행과 이미지 실추는 안된다”는 판단 아래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대자협 소속 각 단위가 하나된 조선대”를 위해 대승적 화합을 이룰 경우 얽힌 실타래가 쉽게 풀리고 학교도 이른 시간 안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겠지만 소송과 가처분 신청, 이전투구식 갈등이 지속된다면 장기 파행을 빚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숲속에서 낚잡을 2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서 열린 우뚜푸(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숲속 낚잡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낚을 잡고 있다.

진도군 공무원노조, “공무원 폭행·폭언 민원인 고발”

진도군 공무원노조는 21일 “진도군청 공무원을 폭행·폭언·협박한 민원인을 공무원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진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다”면서 “폭격자 등 관련 자료 수집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지난 18일 진도군청의 한 사무실에서 6급 담당 공무원 B씨에게 인

격 모욕성 폭언과 함께 자신의 수첩을 얼굴에 던지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B씨는 정신적·육체적 충격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폭행 당시 상황을 지켜본 진도군청 동료들도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시회에서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협박 등 폭언·폭력에 의한 의사표현은 범죄행위일 뿐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고 법 질서를 부정하는 반민주적·반인륜적 행위”라며 “진도군은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해 진도군 차원의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제발 방지대책 등 대응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민원인 A씨는 열에 피해보상 요구 플래카드 원상 복구와 철제 도래지 환경 감시원 운영 요구, 환경관리센터 지원금 추가 지급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성 금속제조공장서 불...4명 부상

23일 오전 11시5분께 장성군 황룡면 한 금속제조공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 등 4명이 화상 등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장 용해 공정 내 일부 설비가 타거나 그을렸다.

불이 나자 진화차량 17대와 소방관 40여 명이 투입돼 신고 접수 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고흥 해상서 조업 중이던 선원 숨진 채 발견

고흥군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선원 1명이 해상으로 추락해 숨졌다.

23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오후 11시 4분께 고흥군 과역면 진지도 북서쪽 4km 앞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순천선적 형망 어선 K 호(10t)의 선원 A (61) 씨가 실종됐다.

이 어선 선장 B (61)씨는 식사 시간에 선원이 보이지 않자 어업무선통신국을 경유해 여수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경비함정과 구조대, 민간 해양구조선과 민간 선박은 사고해역을 중심으로 수색하던 중 23일 오전 0시 23분께 맥박과 호흡이 없는 상태의 A 씨를 발견했다.

여수해경은 K 호 선장 및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 호는 22일 오후 4시 27분께 보성군 삼진항에서 출항했으며 고흥군 진지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선원이 실종됐다.

고흥=한윤섭 기자

전자발찌 찬 채 여성 성추행 20대 긴급체포

전자발찌를 부착한 20대가 심야시간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23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A (29)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0시 20분께 광양시의 한 주택가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끼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 여성을 100m 정도 뒤쫓아가 인적이 없는 곳에서 여성을 추행하다가 여성이 저항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현장 주변의 CCTV를 분석해 A 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았다.

광양=김승호 기자

홀로 사는 여성 집 침입 시도 30대 구속

1인 여성 가구를 노린 주거침입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홀로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고자 한 혐의(주거침입 등)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0시44분께 광주 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침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술에 취한 여성을 뒤따라가 뒤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열린 문 틈으로 손을 밀어넣었으며, 초인종을 누르고 10여분간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과 거주지가 없는 김씨는 노숙자이며 성범죄 관련 전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 “여성들에게 ‘잠을 잘 곳이 없다. 재워줄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이를 거절해 뒤따라갔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영상을 통해 김씨가 범행 뒤 건물 경비원에게 발각돼 도주하는 장면 등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범행 당일(19일) 오후 2시18분께 인근 병원의 계단에서 노숙하고 있는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가 ▲술 취한 여성의 집에 뒤쫓아 들어간 점 ▲출입문 앞에서 한참 머문 점 ▲다시 찾아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점 등을 들어 성폭력특별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